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3, No. 4, 2011. 11, pp. 203-224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관한 인식과 대책*

- 신문기사를 통해 본 동향 분석 -

정 순 둘+
(이화여자대학교)
박 현 주
(이화여자대학교)
김 보 경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4개의 주요 일간지를 대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472건의 기사를 통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과 대책은 경제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긍정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 파악과 실제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 사회만이 갖는 특수한 상황이나 문제점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대책 논의와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고령화 사회, 인식, 대책, 내용분석, 신문기사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30-B00209)
+ 주저자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다.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국 사회의 노인 인구는 전체의 11%를 차지하며, 불과 7년 후인 2018년에는 14.3%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0).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 공통의 문제이며 국가정책의 중요한 관심사로 주목받는 이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압축적인 노령화(compressed aging)'로 표현되는 급속한 고령화는 해결을 위한 준비 기간이 그만큼 짧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조성남, 2004). 즉, 한국은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고령화에 올바르게 대응할 여유가 부족하며 그만큼 고령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시급한 예측과 대비가 절실한 상황임을 의미한다(홍성태, 2007; 이현훈·이영련·허현승, 2008).

고령화 사회에서 우려로 지적되는 현상들을 노인문제라고 보는 것은 마치 노인이 문제의 근원이 된다거나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사회의 고령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과 대응 방안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사회 전반의 문제로 보는 정확한 판단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 그동안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의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가져왔으며,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한계와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과 위기로 표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의 고령화가 예상했던 것처럼 인류와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위기인 것만은 아니라 일종의 도전이며 충분히 해결가능한 과제로 보는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다(Anderson and Hussey, 2000; Fealy and McNamara, 2009).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이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연구들은 거의 없다. 사회 현상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 및 실행에 주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방안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문과 같은 미디어의 내용(texts)은 다양한 담론과 개념틀 안에서 형성된 어떤 이슈에 대한 사회적인 구성(social constructions)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Wilkinson, 1999; Rozanova, 2006). 그래서 신문을 통한 내용분석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public perception)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함의를 가지면서 공공정책 및 대응방안 논의에서 핵심주제였던 만큼, 신문과 같은 미디어 분석은 고령화 사회와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유지에 대한 정부의 태도 및 사회대응 방안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된다(Rozanova, 2006). 이런 점에서 신문기사의 분석을 통해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및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 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하여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혹은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해결 및 과제를 위하여 현재 실행중이거나 고려되는 대응방안 이외에 반드시 필요한 대안 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고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 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인구구조에서 인구연령층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인구전환현상(demographic transition) 및 인구 재분배 현상(population redistribution)에 의해 이루어졌다(조성남, 2004; 장혜경, 2005). 즉, 정부의 인구 억제정책과 국가 계획에 의한 출산율 저하, 위생 및 의학 발달로 인한 사망률 저하 그리고 이촌향도형 인구 이동에 의한 가족 형태변화의 결과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한국의 가장 심각한 고령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홍성태, 2007; Hewitt, 2009).

이처럼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령화는 기존의 사회적인 균형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고령화 사회는 위기 담론에 의해 주로 설명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에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김미숙・원종욱・서문희・강병구・김교성・임유경, 2003; 박경숙, 2003; 박동석・김태환・이연선, 2003; 장혜경, 2005; 홍성태, 2007; 정경희・이윤경・이소정・이은진・조혜현, 2008; Cutler, Poterba, Sheiner and Summer, 1990; Hewitt, 2009; Lindh, Malmberg and Palme, 2005).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 및 출산율 저하에 의해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생산인구가 부족해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연금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의 압박이 나타나며 노인 부양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점, 노년기 만성질환과 관련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 등은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의 문제이며 이들 연구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로 공

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여러 문헌들에서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늪', '쇼크', '시한폭탄', '위기' 등의 단어들은 고령화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박동석 외, 2003).

인구의 고령화는 이와 같이 '문제' 패러다임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기 시나리오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Northcott, 1994; Anderson and Hussey, 2000). 실제로 고령화 사회를 도전 혹은 과제로 삼아 더 나은 사회를 향해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시도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금의 노인들이 과거의 노인들과 비교하여 훨씬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향상된 경제력과 교육수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예측하며 노년층이 사회의 노동력이자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준다. 즉,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를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 노인 차별 극복을 통한 사회의 통합을 위한 접근들은 고령화 사회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을 함축하고 있지 않으며, 도전과 기회의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김동일, 2001; 조성남, 2004).

실제로 노화와 노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노화와 노인에 대한 보다 중립적인 논의들이 점차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Fealy and McNamara, 2009). Anderson과 Hussey(2000)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 간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전 세계에 걸친 인구의 고령화가 인류와 사회에 절망과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심각한 문제로 예측되고 있는 고령화에 의한 노인 의료비 부담은 인구 고령화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러 선진국들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반드시 국가의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고령화 관련 이슈들이 국가의 정책적인 관점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수준의 것임을 주장하였다. Johnson(1999) 역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가정들이 매우 모호하며 실제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국내외 연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나 대응에 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관련 연구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보다는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전문가나 학생, 일반성인, 중년층 등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Choi and Dinse, 1998; 이윤경, 2007; 박영희·이선정·신효식, 2008; 전혜성, 2009; 최성재, 2009), 미디어나 신문기사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분석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Rozanova, 2006; 김선영, 2007; Fealy and McNamara, 2009).

기존의 여러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주로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들과 그로 인한 사회의 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경제적인 영역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 및 재정 기초는 인구구조의 변화, 즉 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국민연금 수급률이 증가하면서 국가적인 연금재정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로 국가의 수입은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의 증가 및 노인 의료 및 복지비용 등의 재정지출이 급증하여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미숙 외, 2003; Cutler et al., 1990).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영향은 경제적인 영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부양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김미숙 외, 2003; 정경희, 2003; Lindh et al., 2005), 노인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인들의 은퇴는 노동시장과 국가재정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상실 및 사회적 참여의 축소, 고립감 등과도 연결된다. 또한 부모-성인자녀와의 관계가 길어지면서 가족 관계와 부양에 관한 측면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인구고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대응 마련이 촉구되었으며 2002년 UN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통해 대응을 위한 정책틀과 행동강령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정경희 외, 2008). 한국의 경우, 사회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대응과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홍성태, 2007). 국가의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된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야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령사회플랜이나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노인의 소득과 고용 지원을 통해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노인의 수명과 행복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20년까지 예산을 투입하는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고 올해 초에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 조례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2006년 확정된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중대한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노력으로 평가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속도에 비하여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은 아직 느리고 미온적이며 경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박순일, 2003).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 등 제도 개혁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시의적절한 정책과 그에 대한 계획 수립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에 수립된 2차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하여 앞으로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 국가의 주요한 정책임을 확인하였으나, 국민의 인식 정도와 정책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한상필, 2011). 1차년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전 계획의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효성 있는 고령화 사회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엄규숙, 2010).

이제까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고령화 사회의 위기나 인식에 비하여 대책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부족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적 정책의 추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홍성태, 2007).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고용안정, 국가재정의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계획 이외에도 노년층의 건강과 주거, 문화, 가족 정책 등에서도 효과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박순일, 2003).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신문기사를 통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문은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대중매체이면서 사회적 현상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시기에 게재된 신문기사를 통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김춘경·이주옥·송영주, 2009). 이를 위하여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4개 신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4개 신문을 선택한 이유는 구독률과 발행부수 면에서 상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사회현상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며, 사회의 특정 현상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가정 하에(유선영, 2004),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의 신문들을 함께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도 이후의 신문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5년을 표집단위로 하여 2000년, 2005년, 2010년도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제안 및 공약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되는 대선과 새로운 정부출범을 고려하여 2003년과 2008년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2008년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 부양 및 생활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이 처음 실시된 해이기도 하다. 기사검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DB와 조선일보 아카이브, 중앙일보 DB를 이용하였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만을 통해 기사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검색어는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 '초고령사회'를 키워드로 하였으며, 이 때 광고, 사건사고, 북한, 스포츠 등의 고령화 사회의 인식과 대책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면종과 장르를 제외하여 상세 검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터넷 기사를 제외한 지면상의 기사만이 검색되었다. 이렇게 검색된 총 1692개의 기사 중 국내의 고령화 사회 인식과 대책이라는 연구주제에 해당하는 기사들만을 선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신문별로 조선일보 123건, 중앙일보 102건, 한겨레신문 113건, 경향신문 134건으로 총 472건의 기사가 최종적인 분석대상이 되었다.

2) 분석방법

신문기사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양적인 내용분석을 사용하였다. 양적인 내용분석은 "내용을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어떤 범주에 할당하고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러한 범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Riffe, Lacy and Fico,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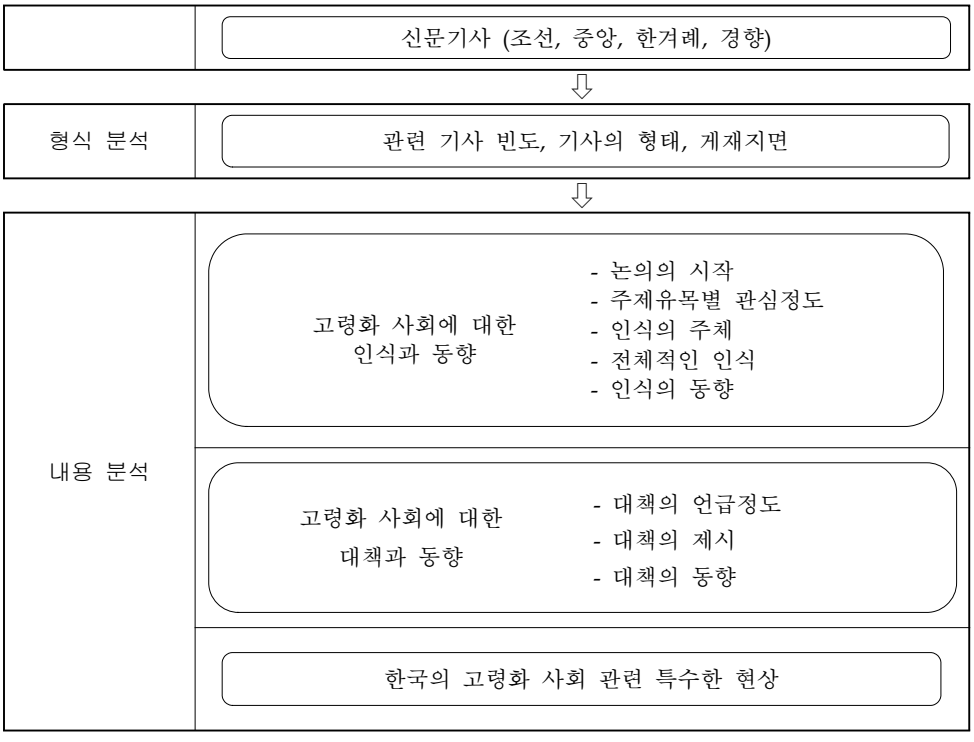
내용분석을 위하여 3명의 연구자가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 내용의 검토와 의논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분석틀을 제작하고 주제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틀 제작의 초기에는 신문기사 내용의 체계적인 범주화를 위하여 고령화 사회 및 노인복지 관련 선행연구(김미혜, 2008; 송현애, 2008) 등을 참고로 하여 분석틀을 만들고 분류유목을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신문 기사의 키워드는 개별적으로 추출되었고 이를 하위주제의 키워드로 활용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중고령 퇴직자' '노후소득', '노후연금 및 보험'이 키워드인 기사는 '소득 및 고용' 영역으로, '사회적 고립', '노인학대', '노인자살'이 키워드인 기사는 '노인문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주제유목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키워드까지 포함하는 틀을 구성하였다.

그 후 분석틀을 정교화하기 위하여, 코더들이 분석틀과 분류유목을 잘 숙지하도록 하고 기사를 코딩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찾아낸 후에 논의를 통해 연구의 분석틀을 다시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분석틀의 점검 및 수정의 반복적 과정은 분석범주 및 유목의 개념이 구체화되고 정교화되어 결과적으로 신뢰도 높은 분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이방현, 2010). 특히 유목 분류 작업에서 복합적인 주제를 가진 기사인 경우에는 기사의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기사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를 선택하였으며, 선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목이나 내용에서 가장 처음에 다루어지는 것으로 유목을 분류하였다. 이것은 신문의 기고자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목이나 기사에서 가장 먼저 표현되기 때문이다(곽정인 · 김희진, 2010).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제별 유목은 14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었으며 크게 인구구조의 변화, 개인 및 가족영역, 건강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항목별 인식과 대책 측면의 유목은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사에 대한 분석틀은 크게 물리적이고 형식적인 분석과 내용적인 분석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기사의 형식 분석에서는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에 관한 기사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기사의 게재지면을 통해 기사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둘째, 기사의 내용분석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인식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고령화 사회 논의의 시작, 주제별 관심정도, 인식의 주체, 전체적인 인식 및 동향을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대책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대책의 언급 정도와 주제별 대책 제시 및 동향을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와 관련되어 한국 사회 특유의 현상으로 지적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

〈표 1〉 주제 유목 분류

주제 분류	코드	하위 주제
인구구조의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개인 및 가족영역	2	노인부양 및 수발
	3	가족관계
	4	노인문제
건강 영역	5	건강 및 의료
경제적 영역	6	소득 및 고용
	7	국가재정 및 예산
	8	국가경제성장
	9	고령친화산업
사회적 영역	10	여가 및 사회활동
	11	세대 간 연대
	12	사회복지서비스
	13	주거복지 관련
	14	사회적인 인식 변화



[그림 1] 분석의 흐름

내용분석의 신뢰도는 코더들 간의 일치도를 측정하는 코더 간 신뢰계수(inter-coder reliability)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과정에서 우연히 일치될 확률을 고려하지 않은 기법으로, 국내의 내용분석 신뢰도 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김성태, 2005) 홀스티(Holsti) 기법[1]을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기사의 약 10%인 50건의 기사를 무작위 표집하였고 연구자 2명의 상호일치도를 살펴보았다. 분석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주제별 분류유목 등 코더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뢰계수는 .94로 나타나 홀스티 기법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신뢰도 수준인 90%를 넘어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1) 기사의 형식 분석

(1) 고령화 사회 관련 기사 빈도

①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고령화 사회 기사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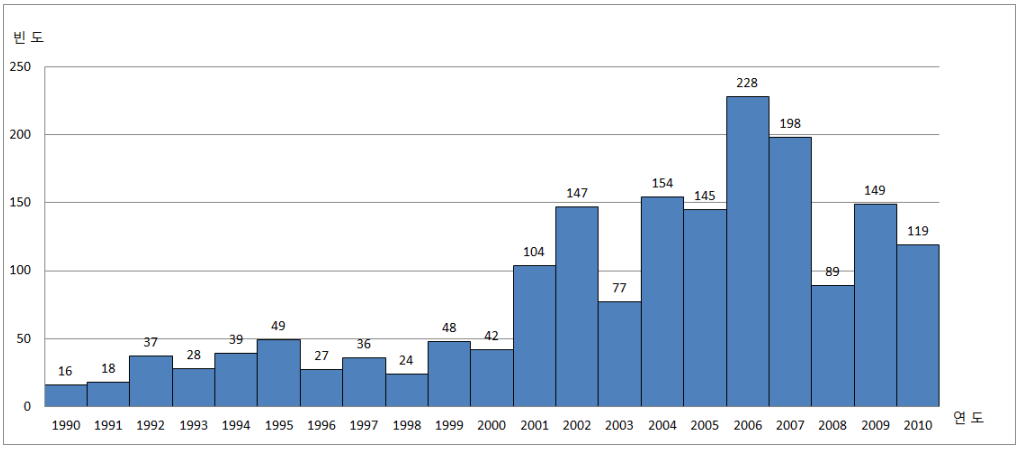
1990년부터 2010년까지 4개 신문의 고령화 사회 관련 기사 빈도를 나타낸 [그림 2]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기사 빈도가 모두 50건 미만이지만 2000년 이후부터 대다수의 연도에서 100건을 넘어 기사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1) 신뢰도 계수 = $\frac{2M}{N_1+N_2}$

(N_1+N_2 : 연구자가 코딩한 전체수. M :연구자 간의 일치한 코딩수)

(김신정 · 이정은, 이자형, 1999)



[그림 2] 1990년 이후 고령화 사회 관련 신문기사 빈도

② 연구 대상 연도에 대한 기사 빈도

〈표 2〉에 따르면 전체 빈도가 2000년 42건, 2003년 77건, 2005년 145건, 2008년 89건, 2010년 119건으로 나타났다. 타 연도에 비해 2005년과 2010년에 고령화 사회 기사 빈도가 급증한 것이 특징적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발표된 2006년과 2011년도의 바로 전 년도로서, 발표를 앞두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고령화 사회 신문기사 빈도

단위 : 건(%)

	2000	2003	2005	2008	2010	계
조선일보	9(21.4)	31(40.3)	35(24.1)	23(25.8)	25(21.0)	123(26.1)
중앙일보	13(31.0)	22(28.6)	34(23.4)	15(16.9)	18(15.1)	102(21.6)
한겨레신문	13(31.0)	6(7.8)	39(26.9)	19(21.3)	36(30.3)	113(23.9)
경향신문	7(16.7)	18(23.4)	37(25.5)	32(36.0)	40(33.6)	134(28.4)
전 체	42(100.0)	77(100.0)	145(100.0)	89(100.0)	119(100.0)	472(100.0)

(2) 기사의 게재지면

고령화 사회 관련 기사의 게재지면에 따라 살펴본 기사의 유형은 〈표 3〉과 같다.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나 상황을 보도하는 종합면이 176건(37.3%)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종합면은 신문 지면의 1~5면을 차지하는 만큼 기사의 내용 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사를 게재하는데, 이 면에서 고령화 사회 관련 기사 빈도가 가장 많다는 것은 언론에서 고령화 사회 관련 현상과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종합면에서 사실보도 기사 외에 다각적,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기획/연재 기사의 빈도도 62건(13.1%)을 차지해 2000년 이후 높아진 고

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인 게재지면은 125건(26.5%)으로 칼럼/기고면이다. 이 면은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과 비판 등을 주관적으로 피력하는 면으로서 전문가, 학자, 논설위원, 일반시민 등 사회 각 계각층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와 불안 등의 내용을 다룬 경제면이 92건(19.5%), 사회면 34건(7.2%), 문화/생활면 19건(4.0%), 정보통신과학면 17건(3.6%), 국제면 9건(1.9%)을 차지하였다. 다양한 게재지면에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내용의 기사가 실린 만큼 많은 영역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기사의 게재지면

단위 : 건(%)

게재지면 종류	빈 도
종합면(뉴스)	114(24.2)
종합면(기획/연재)	62(13.1)
칼럼/기고면	125(26.5)
경제면	92(19.5)
사회면	34(7.2)
문화/생활면	19(4.0)
정보통신과학면	17(3.6)
국제면	9(1.9)
계	472(100)

2) 기사의 내용 분석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동향

① 신문기사 내 '고령화 사회' 논의의 시작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신문은 1981년 12월 31일자의 조선일보로, 사설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누구나 늙는다 -高齡化(고령화) 사회의 政策(정책)개발을'이란 제목의 사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같이 노후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여 정년퇴직후의 걱정을 안해도 되는 처지도 아니다. 만50세부터 시작되는 정년퇴직자의 태반은 새로운 직업과 직장을 구해야 되고 제2의 인생설계를 꾸미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경로사상과 노인에 대한 대접은 노인에게 알맞은 천직을 찾아주는 일일 것이다. 노인이 되기 이전인 55세 이상의 퇴직자에게는 더더욱 절실한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여 일자리가 많거나, 퇴직금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지금의 성급한 인사관리제도에 불만이 없을 것이다. 누구나 늙게 마련이고, 정년퇴직의 고비는 겪는 것이니

모두가 내가 해야 할 일처럼 제2의 인생에 보람과 영광이 깃들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퇴직 후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노인과 예비노인에게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퇴직 후 인생설계를 미리부터 준비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② 주제유목별 기사 분류

기사의 주제유목별 분류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에 따른 분류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노후의 소득 및 고령자 고용에 관한 기사가 117건(24.8%)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가재정 및 예산 관련 기사가 75건(15.9%), 건강 및 의료 59건(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가경제성장 57건(12.1%), 인구구조의 변화 40건(8.5%), 노인부양 및 수발 33건(7.0%), 노인문제 26건(5.5%), 여가 및 사회활동 19건(4.0%), 고령친화산업 14건(3.0%), 세대 간 연대 8건(1.7%), 주거복지 관련 8건(1.7%), 사회복지서비스 7건(1.5%), 사회적인 인식변화 8건(1.7%), 가족관계 1건(0.2%)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제유목별로 분석하였을 때, 기사 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내용의 주제로는 '소득 및 고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와 언론에서 은퇴 후 노인의 노후 소득과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국가재정 및 예산'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 등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나 '가족관계'에 대한 언급은 낮아, 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 내용의 주제유목별 분류

단위 : 건(%)

	2000	2003	2005	2008	2010	전체
소득 및 고용	6(14.3)	24(31.2)	35(24.1)	22(24.7)	30(25.2)	117(24.8)
국가재정 및 예산	5(11.9)	10(13.0)	23(15.9)	12(13.5)	25(21.0)	75(15.9)
건강 및 의료	9(21.4)	14(18.2)	13(9.0)	11(12.4)	12(10.1)	59(12.5)
국가경제성장	2(4.8)	5(6.5)	29(20.0)	11(12.4)	10(8.4)	57(12.1)
인구구조의 변화	3(7.1)	5(6.5)	12(8.3)	8(9.0)	12(10.1)	40(8.5)
노인부양 및 수발	6(14.3)	6(7.8)	11(7.6)	9(10.1)	1(0.8)	33(7.0)
노인문제	4(9.5)	6(7.8)	4(2.8)	3(3.4)	9(7.6)	26(5.5)
여가 및 사회활동	2(4.8)	3(3.9)	5(3.4)	3(3.4)	6(5.0)	19(4.0)
고령친화산업	2(4.8)	0(0.0)	3(2.1)	7(7.9)	2(1.7)	14(3.0)
세대 간 연대	0(0.0)	0(0.0)	4(2.8)	2(2.2)	2(1.7)	8(1.7)
주거복지 관련	1(2.4)	1(1.3)	1(0.7)	0(0)	5(4.2)	8(1.7)
사회복지서비스	1(2.4)	2(2.6)	0(0.0)	1(1.1)	3(2.5)	7(1.5)
사회적인 인식 변화	1(2.4)	1(1.3)	4(2.8)	0(0)	2(1.6)	8(1.7)
가족관계	0(0.0)	0(0.0)	1(0.7)	0(0.0)	0(0.0)	1(0.2)
계	42 (100.0)	77 (100.0)	145 (100.0)	89 (100.0)	119 (100.0)	472 (100.0)

다음으로, 기사의 주제에 따른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노인부양 및 수발' 기사의 빈도가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008년 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면서 노인 수발에 대한 욕구를 정부차원에서 일정 수준 해결해 주어 이에 대한 불안이나 문제제기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가경제성장' 기사 빈도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전보다 건강한 노인 세대와 노인 노동력 및 고용에 관한 관심 증가로 다른 방향의 대책도 고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주거복지 관련' 기사는 미세한 빈도이지만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안전과 고령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뉴스 정보원

기사 내에서 누가 고령화 사회의 이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위기나 문제로 인식하는지 혹은 대처방안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뉴스 정보원(News source)은 "문제에 대한 분석, 설명, 해석을 제공하는 해석자(informant)로, 신문기사의 내용에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견해나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유선영, 2004). 단, 신문기사 내에서 인터뷰 대상자는 신문사에 의해 의도적으로 결정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책과 관련하여 언론에 의해 주로 어떤 대상이 선정되고 견해가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문기사 내 뉴스 정보원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뉴스 정보원(News source)

단위 : 건(%)

뉴스 정보원	빈 도
학자 등 전문가	134(28.4)
언론	96(20.3)
정부	78(16.5)
일반시민	60(12.7)
관련조직 및 기관	41(8.7)
기업관계자	35(7.4)
통계청	21(4.4)
기타	7(1.5)
계	472(100)

학자 등 전문가들이 뉴스 정보원으로 나타난 기사가 13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사 내 사실보도를 통한 언론의 인식이 96건(20.3%), 정부 78건(16.5%)으로 전문가와 언론, 정부의 인식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일반시민 60건(12.7%), 관련조직 및 기관 41건(8.7%), 기업관계자 35건(7.4%), 통계청 21건(4.4%), 기타 7건(1.5%)을 차지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뉴스 정보원은 'UN사무처장, OECD관계자'이다. 학자 등의 전문가, 언론 등은 사회에서 여론을 선도하는 계층으로서, 고령화 사회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관계나 통계청의 인식은 일반시민이나 관련조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신문기사 내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 표현 사용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였다. 신문기사 내에서 '기회, 실버 파워, 시니어, 도전' 등의 단어가 포함된 기사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해석하였으며, 반대로 '위기, 재앙, 부담, 위험' 등의 단어를 포함한 기사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혼합적이란 긍정적, 부정적 내용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경우를 뜻하며, 중립적이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단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분에 의한 전체적인 인식 분류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고령화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신문기사가 290건(6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립적 151건(32.0%), 긍정적 27건(5.7%), 혼합적 4건(0.8%)기사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신문기사 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단위 : 건(%)

	2000	2003	2005	2008	2010	전체
긍정적	0(0.0)	3(3.9)	7(4.8)	8(9.0)	9(7.6)	27(5.7)
부정적	18(42.9)	47(61.0)	110(75.9)	55(61.8)	60(50.4)	290(61.4)
중립적	24(57.1)	27(35.1)	27(18.6)	25(28.1)	48(40.3)	151(32.0)
혼합적	0(0.0)	0(0.0)	1(0.7)	1(1.1)	2(1.7)	4(0.8)
계	42 (100.0)	77 (100.0)	145 (100.0)	89 (100.0)	119 (100.0)	472 (100.0)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보도에 중점을 둔 중립적 기사의 빈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낮아졌던 비율이 2008년부터 다시 높아짐으로써 고령화 사회를 기회와 재앙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판단하기보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긍정적인 기사가 미세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부정적인 기사의 경우에는 2005년까지 빈도가 높았지만 이후로 빈도가 낮아지다 다시 높아져 여전히 부정적인 측면이 강함을 보여주었다.

(2)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과 동향

① 대책의 제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기사 내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혹은 개인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의 유무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기사는 295건(62.5%), 제시하지 않는 기사는 178건(37.5%)으로 나타났다. 다른 해에 비해 2005년과 2010년에 대책을 제시한 신문기사 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적 현상인데, 이는 2006년과 2011년에 발표된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각종 대책이 신문기

사 내에서 언급되어졌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2000년과 2003년의 경우도 70% 이상의 기사에서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000년은 고령화 사회 진입의 해이고 2003년은 대선 공약과 관련하여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 대책의 제시 유무

단위 : 건(%)

	2000	2003	2005	2008	2010	전체
제시함	30(71.4)	60(77.9)	89(61.4)	36(40.4)	80(67.2)	295(62.5)
제시하지 않음	12(28.6)	17(22.1)	56(38.6)	53(59.6)	39(32.8)	177(37.5)
계	42 (100.0)	77 (100.0)	145 (100.0)	89 (100.0)	119 (100.0)	472 (100.0)

②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의 동향

신문기사 내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지를 대책의 주제 유목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은퇴 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사가 103건(21.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재정 마련 및 적정화 33건(7.0%), 건강한 노후생활 32건(6.8%) 순이었다. 이외에 저출산 극복 20건(4.2%), 국가경제성장과 생산인구 확충 19건(4.0%), 활기차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16건(3.4%), 노인에 대한 관심과 개입 14건(3.0%), 노인부양 및 수발 13건(2.8%),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 12건(2.5%),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10건(2.1%), 고령친화 및 실버산업의 활성화 6건(1.3%),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 6건(1.3%), 세대 간 갈등해소 4건(0.8%), 가족관계 유지 및 연대 2건(0.4%), 기타 5건(1.1%), 제시하지 않음 177건(37.5%)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대책의 주제는 해외 벤치마킹, 한국사회에 적합한 고령대책 마련, 여성차별 철폐, 고령사회 인프라 확보에 대한 것이었다. 제시하지 않음은 신문기사 내에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기사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책의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기사 내에서 계속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은퇴 후의 경제적인 안정'이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고령자 일자리 창출, 재고용 등의 사회적인 대책과 개인연금 가입, 은퇴 후 재무설계 등의 개인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사회복지재정 마련 및 적정화'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초창기, 2000년에서 2005년도 사이 높은 비율을 보이다 점차 그 비율이 하락한 후 2010년에 다시 높아졌는데, 이는 국가의 노후 보장 정책과 연관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현상인 저출산에 관한 것으로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서 기사 내에서 자주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은 기사 내용의 유목분류 〈표 4〉에서와 달리 전체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와 인식은 낮지만 대책으로서 더욱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다. '세대 간 갈등해소'와 '가족관계 유지 및 연대'는 전체 빈도와 비율 모두 낮은 것으로 보아 세

대 간이나 가족관계 영역 내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으로 보인다.

〈표 8〉 대책의 주제유목별 분류

단위 : 건(%)

	2000	2003	2005	2008	2010	전체
은퇴 후의 경제적인 안정	6(14.3)	25(32.5)	29(20.0)	16(18.0)	27(22.7)	103(21.8)
사회복지재정 마련 및 적정화	5(11.9)	7(9.1)	8(5.5)	1(1.1)	12(10.1)	33(7.0)
건강한 노후생활	4(9.5)	10(13.0)	6(4.1)	4(4.5)	8(6.7)	32(6.8)
저출산 극복	1(2.4)	5(6.5)	8(5.5)	0(0.0)	6(5.0)	20(4.2)
국가경제성장과 생산인구 확충	1(2.4)	1(1.3)	13(9.0)	1(1.1)	3(2.5)	19(4.0)
활기차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1(2.4)	1(1.3)	7(4.8)	2(2.2)	5(4.2)	16(3.4)
노인에 대한 관심과 개입	5(11.9)	0(0.0)	3(2.1)	1(1.1)	5(4.2)	14(3.0)
노인부양 및 수발	0(0.0)	4(5.2)	4(2.8)	4(4.5)	1(0.8)	13(2.8)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	1(2.4)	4(5.2)	1(0.7)	5(5.6)	1(0.8)	12(2.5)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1(2.4)	2(2.6)	1(0.7)	2(2.2)	4(3.4)	10(2.1)
고령친화 및 실버산업의 활성화	2(4.8)	0(0.0)	2(1.4)	0(0.0)	2(1.7)	6(1.3)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	2(4.8)	0(0.0)	3(2.1)	0(0.0)	1(0.8)	6(1.3)
세대 간 갈등해소	0(0.0)	0(0.0)	3(2.1)	0(0.0)	1(0.8)	4(0.8)
가족관계 유지 및 연대	0(0.0)	0(0.0)	1(0.7)	0(0.0)	1(0.8)	2(0.4)
기타	1(2.4)	1(1.3)	0(0.0)	0(0.0)	3(2.5)	5(1.1)
제시하지 않음	12(28.6)	17(22.1)	56(38.6)	53(59.6)	39(32.8)	177(37.5)
계	42 (100.0)	77 (100.0)	145 (100.0)	89 (100.0)	119 (100.0)	472 (100.0)

3) 한국의 고령화 사회 관련 특수한 현상

신문기사 내에서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 언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고령화 사회 관련 특수한 현상을 언급한 총 기사 수는 41개였으며 이 중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름'을 지적한 신문기사가 36건(7.6%)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미한 빈도이지만 '높은 교육비가 저출산율로 이어져 고령화의 원인이 됨' 3건(0.6%), '고령화의 국가안보 위협' 2건(0.4%)도 언급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진행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은 이제까지 자주 언급되었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와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군인력이 축소됨으로써 분단국가로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높은 교육비로 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기 꺼려하는 부부들이 많고 그것이 저출산률로 이어져 고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표 9〉 한국의 고령화 사회 관련 특수한 현상

단위 : 건(%)

한국의 고령화 사회 관련 특수한 현상	빈도(%)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름	36(87.8)
높은 교육비가 저출산율로 이어져 고령화의 원인이 됨	3(7.3)
고령화의 국가안보 위협	2(4.9)
계	41(100.0)

5. 결론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신문기사를 이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네 개의 대표 일간지를 중심으로 한 5년 치 신문기사에 대한 분석은 기사에 대한 형식 분석과 내용 분석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으며, 내용 분석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동향, 대응방안과 동향, 한국의 특수한 관련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의 비중이 높아졌고 관심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기사의 빈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 관련한 내용은 칼럼과 기고 면에서 매우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후에 사회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비판을 통해 본격적인 관심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 및 개인 영역, 건강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14개의 주제유목으로 분류되었다. 이중에서 노후의 소득 및 고용문제나 국가 재정 및 예산 등과 관련된 기사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선행 연구와 다양한 문헌에서 파악되었던 결과와 비슷하게(Anderson and Hussey, 2000; 박순일, 2003; 최경수·문형표·신인석·한진희, 2003), 신문에서도 역시 경제적인 영역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고령화의 심각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인 영역 뿐 아니라 개인 및 가족, 사회적 영역 혹은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의 등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적인 인식과 대책이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이며 중립적인 인식 등이 공존하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고령화 사회를 위기가 아닌 기회이자 도전으로 보고 대처 가능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되므로, 노인을 병약하고 무능력하게 보는 전통적인 시각과 함께 노인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경제성장력의 둔화 및 노인 부양 부담, 세대 갈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쇠약하고 의존적이며 사회에 부담이 되는 노인이 아닌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즐기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으로의 관점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그동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온 노인에 대한 이미지, 의존적이며 가족과 사회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존재라는 이미지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하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 기사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 사회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와 실행 방향은 현실적인 문제 파악과 분석에 기초한 문제제기 혹은 실제적인 욕구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이며 수직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령화 사회에 대한 명확한 문제 인식과 판단 하에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앞두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각종 국가예산 및 사회복지재정 마련에 관한 대책 관련 기사들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그 외의 주요 영역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였으며 철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책을 다루고 있는 기사가 매우 적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노인들을 수동적인 수혜자로 볼 것이 아니라 '과소이용된 거대한 사회자원'이며, 노년층이 우리 사회의 풍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조성남, 2004).

다섯째,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 높은 교육비로 인한 저출산, 군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협 등의 특수한 현상들이 신문기사 내에서 등장하였다. 이

들은 우리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으로, 특히 높은 교육열로 인한 교육비 부담은 출산률을 저하시켰으며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율은 급속한 고령화 속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저출산과 사회의 고령화는 군인력 부족을 가져오며 이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공통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처럼 국가 간 문화 및 상황적인 차이점은 그 국가만의 특수한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만이 갖는 특수한 상황이나 문제점에 주목하여 그에 대한 대책 논의와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후의 신문기사를 통해 사회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지만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모든 신문기사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기사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양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의 사회의 인식 정도와 대책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추후 관심과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편,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수량적인 자료로 파악되기 어려운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정인 · 김희진. 2010. "192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자녀양육 기사 중 건강 및 위생 관련 내용분석". 『유아교육연구』. 30(2): 83-108.

김동일. 2001. "장수시대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생존전략". 『한국노년학』. 21(1): 167-181.

김미숙 · 원종욱 · 서문희 · 강병구 · 김교성 · 임유경. 2003. 『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혜. 2008. "한국노년학의 복지 분야 연구동향-1980년(창간호)부터 2008(28권 제 2호)까지의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733-752.

김선영. 2007. "고령화 사회의 노인 이미지 분석 - 4개의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2): 139-169.

김성태. 2005. "국내 내용분석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커뮤티케이션 이론』. 1(2): 39-67.

김춘경 · 이주옥 · 송영주(2009). 국내 신문기사 및 연구논문을 통해 본 아동학대 동향 연구. 놀이치료연구, 13(3), 83-97.

박경숙. 2003. 『고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서울: 의암출판사.

박동석 · 김대환 · 이연선. 2003. 『준비되지 않은 당신과 국가를 향한 시한폭탄-고령화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박순일. 2003. "인구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82: 68-76.

박영희 · 이선정 · 신효식. 2008. "고등학생의 고령화사회와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인식".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 20(4): 107-123.

송현애. 2008.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과 노년기 연구- 가정학전문학술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79-21.

엄규숙. 2010. “실효성 없는 ‘제2차 고령사회 대책 및 성장동력 확보 기본계획’ 비판”. 『복지동향』. 144.: 22-26.

유선영. 2004.『미디어의 세대차이 담론』. 서울: 한국언론재단.

이방현. 2010. “일제시대 신문에 나타난 정신질환자 사회표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윤경. 2007.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 연구”. 『한국인구학』. 30(2): 1-22.

이현훈・이영련・허현승. 2008.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경제발전연구』. 14(2): 27-50.

임춘식. 2001.『고령화 사회의 도전』. 서울: 나남출판.

장혜경 역, 2005.『고령 사회 2018 :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Frank schirrmacher. 2004. Das Methusalem Komplott. 서울: 나무생각.

전혜성. 2009. “노후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의 모색: 중·장년층의 인식 및 태도 조사를 중심으로”.『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4(1): 267-293.

정경희. 2003. “고령화 사회에서의 세대관계”.『사회연구』. 1: 143-167.

정경희・이윤경・이소정・이은진・조혜현. 2008.『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 대응현황과 과제 :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남. 2004.『에이지붐 시대 :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최경수・문형표・신인석・한진희. 2003.『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한국개발연구원.

최성재. 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회』. 29(1): 329-352.

통계청. 2010.『고령자 통계』.

한상필. 2011.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 홍보사업 개선방안 연구”.『홍보학 연구』. 15(2): 149-182.

홍성태. 2007.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 사회 : 상징주의를 넘어 복지주의로”.『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1: 15-40.

Anderson, G. F., and P. S. Hussey. 2000. “Population aging: a comparison among industrialized countries.” *Health Affairs* 19(3): 191-203.

Choi, N. G., and S. Dinse. 1998.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aging population: social work education and practice for productive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4(2): 159-173.

Culter, M. D., M. J. Poterba., M. L. Sheiner., and H. L. Summers. 1990. “An aging society: opportunity or challeng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0(1): 1-73.

Fealy, G., and M. McNamara. 2009. *Constructing ageing and age identity: a case study of newspaper discourse.* National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older people(NCPOP).

Hewitt, P. 2009. “미국 및 한국의 고령화: 세계 고령화 위원회 권고안 재점검”. 『보건복지포럼』. 151: 92-103.

Johnson, P. 1999. “Age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Mercer-Melbourne Institute Quarterly Bulletin of Economic Trends* 3: 37-55.

Lindh, T., B. Malmberg., and J. Palme. 2005. “Generations at war or sustainable social policy in ageing societie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3(4): 470-489.

Northcott, H. C. 1994. “Public perceptions of the population aging ’crisis’.” *Canadian Public Policy* 20(1): 66-77.

Riffe, D., S. Lacy., and F. G. Fico. 2005. *Analyzing media messages : using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in research: 2nd ed.* Mahwah, N.J. : Lawrence Erlbaum.

Rozanova, J. 2006. "Newspaper portrayals of health and illness among Canadian seniors: Who ages healthily and at what cost."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Later Life* 1(2): 111-139.

Wilkinson, I. 1999. "News media discourse and the state of public opinion on risk." *Risk management* 1(4): 21-31.

Public Perception and Countermeasures on an 'Aging Society'

- A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

Chung, Soon-Dool
(Ewha Womans University)
Park, Hyun-Ju
(Ewha Womans University)
Kim, Bo-Kyu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tendencies of public perception and countermeasures on an aging society by the content analysis of Korea's four major daily newspapers since 2000. Results showed distinguishing growth of the public interest on an aging society. Articles were categorized into five domains - demographic structure, family and individual domain, health domain, economic and financial domain, and social domain. 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occupied the highest frequency in the total number of articles. The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revealed both negative and positive perspectives on an aging society.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newspaper articles identified particular phenomenon of Korean aging society as distinct rapid aging population, declining fertility rates caused by higher educational expenses, national security problems. Consequently, when we prepare for the alternatives of the aging society, we should pay attention to more various aspects of societ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ractical problems and needs. Furthermore, researches and discussions focusing on a particular phenomenon of Korea would be required.

Key words: aging society, public perception, countermeasures, content analysis, newspaper article

〔논문 접수일 : 11. 07. 08, 심사일 : 11. 07. 19, 게재 확정일 : 11. 10. 10〕